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예레 31,31-34
[화답송] 시편 51(50),3-4,12-13,14-15(© 12~)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 오리이다.◎

[제 2독서] 히브 5,7-9
[복음 환호송] 요한 12,26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복음] 요한 12,20-33

성가	8시 미사	입당 123	봉헌 211	성체 165 175	파견 446
	11시 미사	입당 123	봉헌 211	성체 165 175	파견 446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 5주일(3월 22일)		주님수난성지주일(3월 29일)		성삼일(4월 2,3,4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성야
미사해설	정일환프란치스코	4구역:이자영엘리사벳	채성일토마스	뜨락:전진영베로니카	임승원투카	채성일토마스	조선덕레지나
제 1 독서	채성일토마스	4구역:정석준요한	강신희요한	뜨락:이의천베드로	최환준분도	최대연다니엘	1독서:허라우렌시오
제 2 독서	정애리스텔라	4구역:윤윤선루시아	김영선안젤라	뜨락:문지영골롬바	최수영분도	김영선안젤라	3독서:심승화헬레나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5독서:권창모미카엘
수난복음			최환준분도	뜨락:박보라올리안나		김휘안토니오	7독서:전진영베로니카
			정애리스텔라	뜨락:권창모미카엘		김순희글라라	시간:심태규미카엘

내 마음의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 24)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하나의 밀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밀알 하나 즉, 주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하느님 사랑과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복음이 전해주고자 하는 바를 안다.

흙을 밟아 볼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논과 밭이 사라지면서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날, 주변을 둘러보니 산 말고는 흙으로 된 땅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보이지 않는다.

일단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땅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듯이 우리 마음도 점점 땅의 생명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마음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내 마음속에 땅을 만들어야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든 남아 있든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십자가의 신비를 참으로 많이 묵상한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밀쳐내고 있는 솔직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십자가는 실패와 죽음의 비극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 앞에서 고뇌를 하신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요한 12, 27)

예수님은 고통과 시련의 십자가 앞에서 한 알의 밀알을 생각하신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죽고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이 싹을 내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진리를 당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내 보이신다.

‘죽어야만 산다’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진리이며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 진리를 지금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난 내가 있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내 마음에 땅을 만들어 주님의 희망을 품고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 것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콘크리트’를 좀 걷어내어 하느님의 법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 31, 33)

김복기 야고보 신부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제1608호 사순 제 5 주일 2015년 3월 22일
부활맞이 대청소/감실조배 구역반별 일정

구역	부활절맞이 성당대청소 담당구역 2015년 3월 29일	
1	오클랜드반	교육관 1, 2 층
	실버반	성체조배실 및 제 2회의실
	알라메다반	대건회관 정원 및 제 1회의실
	샌리엔드로반	야외 성모상과 성 김대건 동상 주변 정원
2	프리몬트반	친교실 및 무대
	유니온반	친교실 화장실(남,녀)
	헤이워드반	제의실 및 통로
	캐스트로밸리반	주차장 (정문 및 후문)
3	리치몬드반	교육관 정문 밖 주변과 차고 쪽
	버클리, 알바니반	유아실 2군데 및 통로
4	월넛크릭,콩코드,플레즌힐반	성당 내부 1, 2 층
	라모린다, 라스모아반	교육관 정원
뜨락구역	뜨락회	친교실 밖 통로 및 주방

성 목요일 감실조배 반(구역)별 일정표 (4/2 - 4/3)			
날짜	시간	담당 (반)	소속구역
4월 2일 성주간 목요일	10 - 11 PM	프리몬트반	2
	11PM-12PM	유니온반	2
4월 3일 주님수난 성금요일	12 - 1 AM	뜨락회	뜨락구역
	1 - 2 AM	리치몬드반	3
	2 - 3 AM	버클리, 알바니반	3
	3 - 4 AM	오클랜드반	1
	4 - 5 AM	알라메다반	1
	5-6 AM	캐스트로밸리반	2
	6 - 7 AM	헤이워드반	2
	7 - 8 AM	라모린다, 라스모아반	4
	8 - 9 AM	월넛크릭반, 콩코드반, 플레즌힐반	4
	9 - 10 AM	실버반	1
10 - 11 AM	샌리엔드로반	1	

하나의 목소리로

말씀의 향기

로마서 15장 6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한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며 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오래전에 몇몇 교부들은 이 구절의 ‘한목소리’가 그레고리오 성가의 노래 방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단 하나의 선율만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반주 없이 애국가 제창을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흡사합니다.

그레고리오 성가가 악보로 남겨지기 시작할 때 여러 ‘목소리’로 노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학계에서는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목소리’ 이론이 우리의 찬양 방식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타 종교를 믿는 분이 성당 미사에 참석한 경험을 말하며 신자들이 ‘하나의 음’으로 기도문 낭송을 한다면 신기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미사 때 신자들이 다함께 기도문을 낭송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짧게는 ‘사제와 함께’부터 길게는 ‘사도신경’까지 다양한 기도문을 다함께 낭송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기도문 낭송이 ‘한 음’을 유지하면서도 ‘한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낭송하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멀리서, 아니면 유심히 전체 소리를 들어보면, 심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자들마다 제각각 다른 빠르기로 낭송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혼란 현상입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입니다. 다함께 같은 선율을 노래하면 간단하게 ‘한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과 리듬이 모두 통일되기 때문에 완벽한 ‘한목소리’가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그가 음악을 전례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음악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음악을 받아들여도 좋다는 결론에 다다르며 “거룩한 말씀은 노래로 부르지 않을 때보다 노래로 부를 적에 더욱 거룩하게, 더욱 뜨겁게 우리 마음을 경건의 불꽃으로 흔들여 놓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성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성당마다 성가대가 가장 바빠질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때보다 많은 양의 성가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평소에는 잘 노래하지 않던 복잡한 음악에도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성가대 단원은 예수님의 수난을 자기네들은 노래 부르며 느낀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추어 성가대가 어려운 곡목을 노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노력과 봉사로 주일마다 미사 시간 동안 그 ‘거룩한 말씀’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미사 때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래하며 ‘한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가대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주고 싶습니다.

허영한 요셉
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 교수

성경산책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안드레아

오늘 복음에서 안드레아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는 벳사이다 출신으로 직업은 어부입니다. 안드레아는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까요?

요한 복음에서는 먼저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거처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나서 형 베드로를 만나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베드로보다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에 초대 교회는 안드레아를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았던 안드레아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4, 18-22/요한1,35-42

안드레아는 형인 베드로의 후광에 가려있지만 그 역시 주님을 따르는 데 적극적인 제자였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천 명을 먹인 기적에서 한 소년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다고 보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드레아는 개방적이고 미래적 안목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멸시하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12,20-34/마르13,3-4/요한6,5-10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흑해 북쪽인 스키타아에서 전도하다가 X자 형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X의 모양은 스승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Χρῑστός의 첫 번째 철자에 해당됩니다.

사도 안드레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

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은 위대한 제자로 러시아와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입니다.

안드레아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조용하게 뒷전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 봉사자였습니다.

허영엽 신부
서울 대교구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였다.”(마태4,18)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개와 물고기 ()마리를 가진 ()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요한6,8-9)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3월22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연	신마태오(현규)	김젼마
	연	이스테파노(상준)	뜨락회
	연	이스테파노(상준)	김젼마
	연	한다윗(홍석)	한수산나
	연	김클레멘스(진철)	노소피아
	연	이마리아(춘선)	이요셉
	연	정요셉/서데레사	정베드로
	연	문요셉(정법)	가족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유데레사	3구역일동
	생	서데레사	3구역일동
	생	심데레사	3구역일동
	생	조엘리사벳	3구역일동
	생	정마태오(진일)	가족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박세레나(동신)	전수산나
	생	황안나	김다윗/유릿다
	생	김안젤라(영선)	김바오로(아룡)
3월27일 금	연	김요한/홍모니카	정분다
	생	이요셉(병열) 생일	김엘리사벳
	생	엠포트리샤 생일	이아네스(명란)
3월28일 토	연	이스테파노(상준)	김데레사
	생	김카타리나	자녀들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79	197	21	297
헌 금	\$498	\$1,382	\$18	\$1,898

< 교무금 > \$3,370

정병구(3-4) 정지문(3-4) 정지오(3-4) 구천남(1-6)
 유제청(3) 조병국(1-3) 팽현팔(3-4) 신우현(1-3)
 최순일(3) 김영자(2) 황문환(2-3) 변귀태(3)
 김세록(1-3) 정애리(2) 김경년(1-3)

< 성소후원금 > \$70

정병구(3-4) 조병국(1-3)

< Bishop's Appeal >

변귀태(3)

< 감사헌금 > -

< 부활초/꽃봉헌 >

구혜순 \$50 임윤택 \$100

< 2차 헌금 > \$747

* 성지주일에 쓸 Palm Tree 구입을 위해 특별히
 지규엽안드레아/지옥진 레지나 가정에서 \$1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오늘 간식은 이견용 요셉/비비안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